바다로 이어진 길 염포산을 걷다

염포산은 옛사람들에게 삶의 애환이 깃든 곳이었다. 산이 높아 마치 하늘과 맞닿은 느낌이다. 보기에도 아득한 고개를 넘으면서 비손을 하거나, 스스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작은 돌을 쌓기도 했던 길이 오늘날은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삶의 애환이든 여유든 염포산은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Donggu Ulsan Metropolitan City

바다로 이어진 길 염포산을 걷다

GUIDE BOOK

울산광역시 동구

바다로 이어진 길 염포산을 걷다

Guide Book

울산광역시 동구
Donggu Ulsan Metropolitan City

바다로 이어진 길 염포산을 걷다

염포산은 옛사람들에게 삶의 애환이 깃든 곳이었다. 산이 높아 마치 하늘과 맞닿은 느낌이다. 보기에도 아득한 고개를 넘으면서 비손을 하거나, 스스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작은 돌을 쌓기도 했던 길이 오늘날은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삶의 애환이든 여유든 염포산은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발행일 | 2013. 11. 07
발행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222)
전 화 | 052)209-3470
팩 스 | 052)209-3469
홈페이지 | http://donggu.ulsan.kr
기획·편집 |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체육과

*이 책에 실린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

contens

1구간
하늘로 이어진 길
(월봉사 ~ 구당재)

2구간
목장의 아침
(염포 ~ 마성)

3구간
파도가 전하는 이야기
(주전고개 ~ 주전몽돌해변)

염포산 안내도
주전의 풍경
염포산 전망대에서..